



성수기 오리고기 소비동향

조 문 규 모란식품이사

1. 서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등식도 되새겨 진다. 지난 10년간의 오리업계의 경기를 돌아보고 향후 펼쳐질 오리업계의 경기를 생각하다 떠오른 단어들이다.

지난 95년 여름 오리가 부족하여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이 당시 가격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적이 있다. 반대로 '97년에는 산지가격 폭락과 새끼오리 가격이 생산비 수준에서 머물렀으나 IMF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물량의 감소와 오리고기 주요 수입국이던 중국의 질병문제에 의한 오리고기 수입 중단 조치의 호재로 98년 오리가격은 또다시 폭등했다.

이후 사육물량 증가로 '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불황의 그늘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깊어 많은 상처를 안기고 '03년말과 '04년 초를 전후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과 함께 떠난바 있다.

지난 '05년도 및 '06년의 오리업계 경기는 과거와 비교하여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커져 있으나 향후 도래할 경기의 모습이 쉽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2. 상반기 육용오리 생산

산란사료 생산량을 기초로 추정된 상반기 폐킨종 육용오리 생산물량은 1천9백40만수로 전년 같은 기간 생산량 1천6백54만수에 비해 17%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기별 폐킨종 육용오리 생산량은 1/4분기에 7백29만수로 전년 동기 5백86만수에 비해 24% 증가되었으며 월별로는 1월 2백34만수, 2월 2백13만수, 3월 2백81만

수 등이 생산되어 전년대비 72%, 11%, 16% 각각 증가했다.

2/4분기 들어서는 1천2백18만수의 폐킨종 육용오리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 동기 1천68만수에 비해 14% 증가되었고 월별로는 4월 3백14만수, 5월 4백37만수, 6월 4백67만수가 생산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15%, 10%, 17% 각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육용오리 생산량 증가의 주요인은 장기적인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 상승에 따른 폐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이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란사료 판매량을 기초로 추정된 올 상반기 폐킨종 암컷 종자오리 사육물량은 1백48만수로 월평균 24만6천수의 종자오리가 사육되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3. 3/4분기 육용오리 생산

4월과 5월 배합사료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석된 폐킨종 종자오리 암컷 사육물량은 24~25만수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24~25만수의 종자오리에서 산란율과 부화율 80~85% 내외로 추정하여 5월과 6월에 생산되는 새끼오리 생산량을 추정하면 5월 4백90만수 6월 5백10만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육용오리 생산량은 육성율 94%로 계산시 4백60만수의 육용오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육용오리 출하물량은 전월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육용오리 생산량은 육성율 94%로 계산시 4백80만수의 육용오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육용오리 생산량은 전월 대비 3% 증가하고 전년 동

기에 비해서는 3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7월과 8월 소비 성수기 물량에 대비하여 종자오리 사육수수를 최대로 늘려 사육하던 물량이 6월과 7월을 전후하여 상당부분 도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여름철 더위에 의한 산란율 부하율이 10% 내외 떨어질 것으로 보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출하되는 육용오리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6월과 7월의 종자오리 사육물량은 전월에 비해 5~1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더위에 의한 산란율 부하율이 10%내외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출하되는 육용오리 생산량은 전월대비 10% 내외 줄어든 4백20만수 내외가 출하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70%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육용오리 출하물량은 전월에 비해 20% 내외 줄어든 3백40만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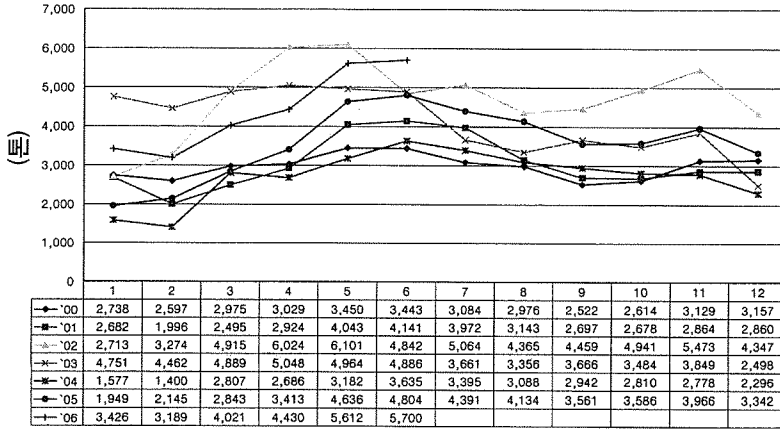
4. 3/4분기 가격전망

월드컵의 여파로 6월 10일을 전후하여 오리고기 소비량이 전월에 비해 20% 줄어든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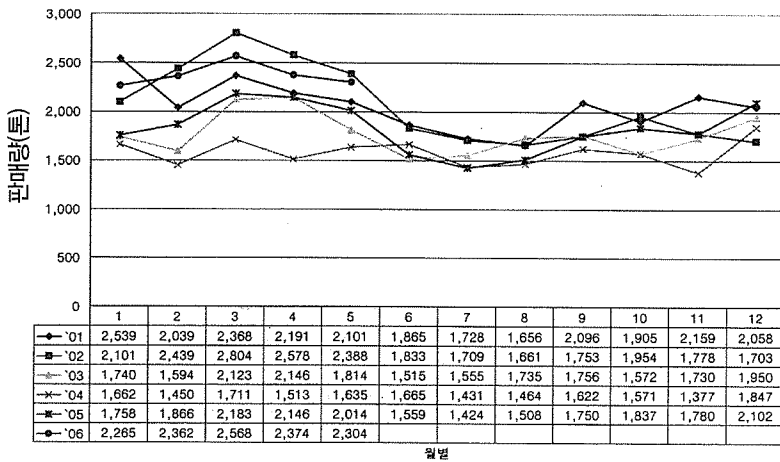
따라서 거래되는 육용오리 가격 역시 전월에 비해 2~3백원 하향 조정되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도체된 지육 오리의 가격 역시 부분적으로 전월의 거래시세보다 5백원 내외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월대비 생산물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이 줄어들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시세의 흐름이나 아직도 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충족되지 못한다. 일부는 7월과 8월의 성수기 물량으로 비축하고 있어 가격하락을 뒷 받침해주고 있

년도별 어린사료 생산량



년도별 산란사료 판매량변화



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의 육용오리 가격은 소비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7%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향조정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8월 중순 이후 안정 하향세로 돌아서 9월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7월과 8월의 생산물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7~8월의 소비성향은 5월과 6월에 비해 30~40% 증가하여 요구량에 비해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8월 중순 이후는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반해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9월 역시 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반해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산란사료 (톤)	일사료 섭취량	중오리 사육수	암컷 수수	토종 비율	페킨종 암컷수	산란율	종란생산 (백개)	부화율	새끼생산수 (백수)	출하율	육용 생산량	전월비 증감	전년비 증감
'06.1	2,265	230g	3,284	2,627	10	2,364	65	46,098	60	23,685	80	23,414	19감	72증
2	2,362	230g	3,424	2,739	15	2,328	70	47,691	65	29,963	90	21,317	9감	11증
3	2,568	225g	3,799	3,039	15	2,583	80	62,002	75	41,670	94	28,165	32증	16증
4	2,374	220g	3,585	2,868	15	2,437	85	62,143	80	46,519	94	39,587	45증	45증
5	2,304	220g	3,491	2,792	10	2,513	85	64,081	80	49,715	94	43,728	19증	19증
6										51,265	94	46,732	7증	17증
7												48,189	3증	30증